**성체 성혈 대축일(2018년 6월 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심리학자가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큰 농장의 밭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밭의 식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한쪽 밭의 식물은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햇빛이나 물, 비료 등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랑받고 축복 받은 식물들은 놀랄 정도로 빨리 성장을 했고, 반대로 저주와 미움을 받은 식물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식물들도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이 식물들이 있는 곳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행해졌는데, 그 먼 거리에서 실험자가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그 감정을 식물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느 오렌지 농장의 한 농부는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농장의 농부는 농약을 뿌리는 대신 날마다 과수원 안을 돌아보며 나무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렌지 열매를 무겁게 매달고 있는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고유한 이름을 붙였고, 그 나무 하나 하나에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까요? 이 농부가 수확기에 은행에 수익금을 맡기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몇년 째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은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늘 불평 많고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별로 친구가 없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기 싫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늘 밝게 웃고,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친구가 많죠.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지내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행복해 지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심어린 축복과 사랑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한낱 식물들도 사랑과 축북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성장과 결실이 눈에 띄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심어린 축북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이 이 성체 성사 안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참된 축복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우리가 구원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제사이고,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는 그냥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냥 빠져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구원받는 일인데, 와도 되고 안와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늘 나라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나요? 우리의 미사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그 초대와 약속에 응답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체 성사가 갖는 의미를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성체 성사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축복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둘째, 성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째로, 성체 성사는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느님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 그리고 구원의 힘. 이것이 성체 성사가 갖는 의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그 저녁 식사를 끝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며칠 후에 돌아가신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체험과 목격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부활의 기쁨에 넘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저녁 만찬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고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때는 정확히 이해활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생생하게 그들 삶에 현실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스승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저녁 만찬을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몸으로,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 공동체의 성체 성사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이 사랑의 성사, 희생과 구원의 성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이 성체 성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의 그 의미를 잘 간직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때, 우리 삶은 참된 행복과 평화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의 성체 성사는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잔치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복되도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체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